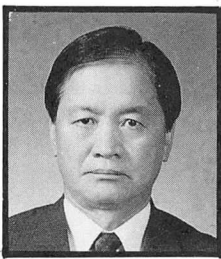


농림수산부 김정용 차관보 과로로 순직

-마지막 길 5명에 장기 기증



고 김정용 차관

25년을 외길로 봉직한 공무원이 마지막 가는 길에 자신의 모든 장기를 기증, 온몸으로 남에게 봉사하는 살신성인을 보였다.

지난 1월 16일 집을 나선 김정용 농림수산부 차관보는 출근길에 승용차 앞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부인 장갑생씨(52)와 가족들이 김차관보를 급히 영동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몸에 쌓인 과로 때문이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가뭄현장을 둘러보려 영·호남 지방을 다녀온 김차관보는 일요일에도 출근, 가뭄대책상황실에서 대책을 세우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던 것이다.

17일 오전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호송된 김

차관보는 가족과 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뇌사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때가 오후 3시.

남편과 함께 독실한 기독교인인 장씨는 『죽으면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말해온 남편의 평소 뜻을 따라 양쪽 신장과 안구, 심장판막 등 6개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김차관보의 몸을 떠난 장기들은 기다리고 있던 안모씨(33) 등 5명의 환자에게 새 삶을 주었다. 김차관보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7회 행정고시에 합격, 27세때인 70년 농림수산부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으며 80년에는 보국훈장 3·1장을 받았다. 유족으로 부인과 고교2년생 고명딸 은주양(16)이 있다.

한편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오후 고 김정용 농림수산부 차관보의 빈소가 마련된 목동 소재 이화여대부속병원을 찾아 차관급과 황조근정훈장을 추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고인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농림수산부 조직 개편

농림수산부는 WTO체제 출범에 대응 경쟁력 향상과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차관보 2실 5국 8관 30과 체제로 바뀌게 되었고 본부 산하

8개기관 중 4개 관서(국립종축원, 국립종자보급소, 국립잡사소, 국립농업자재검사소)를 농촌진흥청으로 통폐합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시험장과 농림수산부 직속인 국립종축원을 통합, 축산기술연

구소로 개편키로 확정하였다.

통합되는 축산기술연구소는 종축개량부와 축산기술부 등 2부체제로 운영하고 부장은 3급 상당의 기술직 또는 연구직이 맡게 되는 방향으로 안을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를 확대하여 수의과학연구소로 개칭하고 과명칭도 바뀌고 4급 상당의 보직이 늘어났다.

동물검역소의 경우 국제화 추세에 맞춰 대폭적으로 기구를 확대,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정부, 돼지고기 올 MMA 물량 전량 수입

농림수산부는 지난 13일 설날을 전후한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3월~4월중 올해 MMA 물량인 2만1천9백30톤(정육기준 1만7천5백톤)을 수입권 공매를 통해 긴급 수입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우선 지육 1만6백톤을 돼지고기 공매기관인 축산물 유통사업단을 통해 공매를 위한 공고를 하도록 조치하고 잔여물량에 대하여도 1월중 공매를 통해 3~4월중 수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설날을 대비하여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돼지고기 정육 6천7백톤을 평시 1일 50~80톤에서 1백~1백50톤 수준으로 배로 늘려 방출하고 있다.

축산업 경쟁력제고 위해 5조9천여 억원 투융자

농림수산부는 WTO체제 출범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제고 대책으로 '95년부터 2001년까지 양돈분야 1조2천9백85억원, 한우분야 2조1천8백89억원, 젖소분야에 1조1천7백17억원, 양계분야에 5

천1백3억원 등 총 5조1천6백94억원을 투융자하기로 했다.

양돈의 경우 경쟁력제고 대책에 1조5백60억원, 개량대책에 23억원, 유통개선대책에 3천3백37억원, 사료대책에 3백50억원, 위생방역대책에 5백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계획은 위생부문과 사육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이같은 투융자가 완료되면 2001년의 가축사육 마리수는 한육우가 2백32만4천마리, 젖소 60만마리, 돼지 7백10만마리, 닭 9천1백45만마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기자재 부가세영세율 곧 적용될 듯

축산기자재 부가세영세율 적용 시행일정 지연에 따른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늦어도 2월중 본격 시행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품목수도 94개~1백54개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재 축산기자재 부가세영세율 적용이 만들어져 있으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령과 동시에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품목수는 당초 95개에서 추가 59개를 포함 총 1백54개 품목을 대상으로 영세율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품중 백원~천원단위의 품목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및 수입관리 요령」 고시

농림수산부는 구랍 31일 UR협상에서 합의된

돼지고기·쇠고기를 비롯 1백90개 주요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관리계획을 확정하고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및 수입관리 요령」을 제정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수입권공매로 수입되는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추천기관 축협중앙회, 공매기관 축산물유통사업단, 수입기관 민간자율(수입금 공매낙찰자)로 된다.

특히 국내외 가격차로 인하여 국영무역 및 수입권공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익금은 품목별로 농산물의 경우 농안기금에, 축산물은 축발기금 등 관련 기금에 흡수하여 농축산업경제력 제고를 위한 투융자재원으로 활용기로 했다.

시장접근물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품목별로 사용용도를 7개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별로 수입추천대행기관을 지정, 종우·종돈의 경우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종계의 경우 대한양계협회에서 양허관세 추천대행을 하게 된다.

공매시기는 해당년도 실시를 원칙으로 연도별 쿼터물량 인정이 통관시점인 점을 고려 연도 개시 이전에도 공매입찰하여 해당연도내에 통관시킬 수 있도록 했다. (<표 1> 참조)

냉동육 유통기한 연장

보건복지부는 최근 식품위생법 가운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지금까지 관련규정이 없던 가열냉동소시지를 올해부터는 보존온도 영하 15도 이하에서 90일까지 유통기한을 두기로 하고 지난 1월 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돼지고기 냉동육은 유통기한을 현재의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기로 했으며, 또 그동안 권장 유통기한이 설정돼 있지 않던 닭고기 등 가금육 및 기타 냉동육도 올해부터는 영하 20도 이하에서 9개월까지 유통시킬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표 1> 축산관련 주요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사용용도 및 추천대행기관

품목구분	H·S	품 명	사용용도	수입관리방식	양허관세추천 대 행 기 관
종 우	0102-10-1000 0102-10-2000 0102-10-9000	소(종우/젓소) 소(종우/육우) 소(종우/기타)	종 축 용	실수요자 추천	한국종축개량협회
종 돈	0103-10-0000	돼지(종돈)	종 축 용	실수요자 추천	한국종축개량협회
종 계	0105-11-1000 0105-91-1000	닭(1백85kg 이하/종계) 닭(1백85kg 이상/종계)	종 축 용	실수요자 추천	대한양계협회
쇠 고 기	0201-10-0000 0201-20-0000 0201-30-0000 0202-10-0000 0202-20-0000 0202-30-0000	쇠고기(신선·냉장/도체·이분도체) 쇠고기(신선·냉장/뼈채절단) 쇠고기(신선·냉장/뼈 없는 것) 쇠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쇠고기(냉동/뼈채절단) 쇠고기(냉동/뼈없는 것)	일반내수용 외화획득용원료 외화획득용제품	국영무역(다만, SBS로 수입되는 물량은 실수요자추천) 실수요자추천 〃	축산물유통사업단 〃 〃
돼지고기	0203-21-0000 0203-22-0000 0203-29-0000	돼지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돼지고기(냉동/넙적다리·어깨살/뼈채절단) 돼지고기(냉동/기타)	일반내수용 외화획득용제품	수입권공매 실수요자추천	축협중앙회 〃
닭 고 기	0207-21-0000 0207-41-1000	닭고기(미절단/냉동) 닭고기(절단/간장제외/냉동)	일반내수용 외화획득용제품	수입권공매 실수요자추천	축협중앙회 〃

이에 따라 그동안 한·미간에 통상마찰을 빚어왔던 냉동식품 가공육중 가열냉동소시지 유통기한의 경우 미국측의 요구인 180일에 근접한데 따라 지난해에 미국 육류업계가 청원한 미통상법 301조와 관련 미국측의 요구가 대폭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육가공업계 등에서는 가열냉동소시지의 유통기한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국내산의 절반 값에 불과한 값싼 수입소시지가 국내시장을 잠식, 육가공업계의 생산의욕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외국업체, 외식업계시장 급속 잠식

최근 외식시장이 급속히 신장하면서 외국브랜드 회사의 외식업체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반해 국내브랜드 외식업체는 매년 급속한 퇴조를 보이고 있어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국내브랜드 업체인 실로암 식품(주)의 굿후랜드가 지난해 50여억원의 매출을 기록, 전년 대비 마이너스 10% 성장으로 뒷걸음질쳤다.

굿후랜드는 돈까스를 주 메뉴로 햄버거, 피자, 치킨 등 다양한 외식메뉴를 취급하면서 가족단위 고객은 물론 어린이층을 겨냥, 집중 홍보하고 있으나 외국브랜드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굿후랜드는 현재 전국에 4백5개, 서울에만 1백50개의 매장을 운영중으로 지난해 60개 가맹점을 신설했으나 폐점도 30~40개에 달해 어려움을 대변해 주고 있으며 포커스랜드와 바이타임 등 유사업체들도 매출부진 등으로 가맹점 탈퇴가 속출하고 있으며 업종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외국브랜드인 코코스, 스카이라,

TGI프라이데이 등 패밀리레스토랑은 철저한 직영주의 등의 원칙으로 성장을 지속하여 전년 대비 약 90% 정도의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8개 경제 부처 올해 첫 업무보고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1월 9일 상호 청와대에서 8개 경제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농림수산부 최인기 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 4월부터 돼지고기, 사과, 배, 화훼, 밤, 버섯, 굴, 김 등 8개 품목에 대한 수출보험제 도입 ▲ 농어민 후계자 1만명, 전업농어가 1만5천가구 육성 ▲ 축산구조사업에 4천4백34억원을 집중 투입해 한우개량단지 추가 조성, 축산분뇨의 퇴비화, 3개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육류 도체 등급제 확대 ▲ 7월 1일부터 농어민연금제 실시, 의료시설 확충 위해 8백1억원 지원, 농어촌 출신 대학생 1만명에 장학금 2백억원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일본, 돼지 인공수정 노동시간 절반으로 줄여

일본에 양돈번식 경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정액 배달업무를 하는 회사가 생겼다.

이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인공수정 방법을 이용하면 2백마리 양돈규모에서는 교배시에 소요되는 노동시간을 자연교배의 경우(주간 10.5시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태지를 기르지 않고 정액회사에서 공급되는 정액만으로 암돼지 2백마리를 키우는 농장도 있다고 밝혔다.

돼지의 인공수정은 덴마크나 네델란드 등에서는 널리 보급되어 있지만, 일본에서는 보급률이 6%에 지나지 않는다. 돼지의 인공수정은 경비절감이 가능하고 계절에 따른 번식 변동도 없기 때

문에 양돈 관련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産 농산물 반입제한 완화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1월 3일부터 제한품목으로 묶었던 북한産 잇담배 등 40가지 농수산물을 1차 반입 자유화 품목으로 정하고 돼지고기(넓적다리 염장 훈제), 쇠고기(식용설육), 고등어 등 32개 품목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2차 반입 자유화 품목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정부가 지난 3일 관보에 공고한 「남북한 간 물품의 반출·입 승인절차 및 교역 대상물품」에 따르면 북어 등 72개 품목이 자동승인품목으로, 돼지고기, 쇠고기, 소(종우), 돼지(종돈) 등 2백25개 품목에 대해 반입제한승인품목으로 개정 고시하였다.

농산물 조기경보제 도입

정부는 농산물의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수급 불안정에 대비해 농산물 생산을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은 14일 연합통신과의 회견에서 “앞으로 농산물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불안정이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의 수급 전망을 조기에 면밀히 분석, 농산물의 생산량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유도하는 조기경보체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냉장육 수입으로 전환

최근 축산물수출분과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냉동육과 냉장육간의 가격 차별화가 정착

되어 냉장육이 냉동육보다 20% 비싼 가격형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냉장육의 수입비율도 총 수요량 대비 '90년 10.8%, '91년 14.8%, '92년 24.1%, '93년 26.8%, '94년 8월 26.1% 등으로 매년 증가하여 냉동육 수입에서 냉장육 수입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94년 8월 현재 냉장육은 대만과 미국에서 95.9%를 수입하고 있으며 냉동육은 대만과 덴마크에서 80.7%가 수입되어 총 수입량은 냉장육 8만2천3백3톤, 냉동육 23만1천8백26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조금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축산자조금제도 추진대책위원회는 구랍 27일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의실에서 자조금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본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대한양계협회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자조금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 입법화 추진이 시급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2월중 축산인과 관계인들이 참석한 행사(축산자조금제도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